
		<h1>보 도 자 료</h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있음)	
배포일시	2017. 4. 18.(화)	담당부서	콘텐츠사업단 VR팀		
담당자	권오영 대리	전화	010-2568-8522		

“세계시장서 인정받는 부산VR스타트업”

부산VR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통해 부산VR기업 글로벌 투자유치 성공!

**HTC VIVE X 프로그램에 3개사 최종 선정... 부산기업 1곳 포함
국내 VR·AR 스타트업 및 기업의 발굴과 글로벌 진출의 신호탄**

부산의 VR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았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서태건)은 부산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산업을 선도하는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운영하는 『부산 VR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6개 업체를 대만 HTC사의 ‘VIVE X’ 프로그램 심사에 진출시키고, 3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대만 HTC VIVE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3자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VR 스타트업 발굴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부산 VR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 ‘부산 VR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HTC사의 자체 육성프로그램인 ‘VIVE X’ 기반의 VR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으로 부산시가 베이징, 선전, 타이페이,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전세계 5번째, 전국에서는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VIVE X’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은 ‘부산 VR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3개 기업 중 부산업체를 포함한 2개사(‘앱노리’, ‘브래니’)가 계약을 완료하여 HTC VIVE사로 부터 직접 투자를 받았다. 나머지 1개 업체는 투

자금 협상 중이다. VIVE X 진출이 확정된 팀에게는 HTC VIVE 본사로부터 펀드 및 기술지원을 포함한 6개 분야에 대한 전문적 멘토링이 제공된다.

- 부산기업인 앱노리(Appnori)는 전체연령이 이용 가능한 스포츠 중심 VR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다. 단순한 조작과 VR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에게 알맞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번 'VIVE X'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 앱노리의 이현욱 대표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부산 VR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기업도 국제적인 수준의 기술지원과 글로벌 투자펀드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며, “향후 다양한 부분에서 부산 VR기업의 저력을 보여 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VRANI(브래니)는 VR 아케이드에 최적화된 캐주얼 VR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다. 브래니의 이홍택 대표는 “부산 VR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VIVE X'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었다.”며, “HTC VIVE와 같은 VR 선도기업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글로벌 진출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HTC VIVE'의 1차 직접 투자를 바탕으로 4개월간의 지원 프로그램을 받는다. 그 이후 6월 말 대만 타이페이에서 진행되는 가상현실벤처캐피탈협회(VRVCA: Virtual Reality Venture Capital Alliance)의 1조 2000억 펀드 지원 프로그램인 'VIVE X Demo Day'에 참가하여 더 큰 투자 기회에 도전하게 된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서태건 원장은 “글로벌 수준의 가상·증강현실콘텐츠가 만들어지도록 선정기업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VR산업이 콘텐츠 위주의 개발에서 관광, MICE, 해양, 제조 등 다양한 기존 산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아울러 특수센서, 통신 등 첨단기술 역시 고도화하여 연계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부산 VR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1차 심사는 오늘 6월 벅스코서 개최되는 '부산VR페스티벌(2017.6.1.~3)'에서 진행된다. 2차 심사는 1차 선정팀을 대상으로 7월 중순 진행될 예정이다. <끝>

- 부산 VR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국내 VR Startup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VIVE-X와 연계하여 운영
- VIVE-X : 전세계 VR Startup 발굴을 위한 HTC 자체 육성 프로그램으로 17억달러 규모인 VRVCA(Virtual Reality Venture Capital Alliance) 펀드를 바탕으로 투자, 제작, 기술, 퍼블리싱 등 지원

[보도자료 문의]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관리부	김가희 선임	051-749-9416	ghkim@busanit.or.kr
	콘텐츠사업단	권오영 대리	010-2568-8522	koy86@busanit.or.kr